전법 일기

불교 1도 몰랐던 불린이 팔공산 파계사로 출가하다

팔공산 파계사는 필자의 출가 사찰이다. 파계사 행자 시절 에피소드 이야기를 담아본다.

1998년 7월 무더웠던 어느 날 아침,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출가길에 나섰다. 여름해가 저물어가고 어둠이 찾아드는 팔공산 파계사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만났던 스님에게 말을 물었다. "저기요. 여기가 파계사가 맞나요?"

불교 예법도 용어도 몰랐기에 했던 무지한 질문이었다. 이에 스님은 필자를 훑어보고는 "어떻게 오셨나요"라고 되물었다. 이에 필자는 "출가하러 왔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스님은 행자 한 명을 소개해줬다. 스님이 소개해 준 김 행자는 간단한 불교용어와 삼배하는 법 등 불교 예절을 지도해줬다. 교육을 마치자 김 행자는 주지스님 방으로 필자를 인도했다. 필자는 배운대로 주지스님께 삼배를 올리고 무릎을 꿇고 앉았다. 이내 스님은 필자에게 "오늘부터 7일 동안 매일 3000배하라"고 지시하셨다.

난생 처음으로 해본 3000배는 농사일보다 더 힘들었다. 하지만 오로지 출가할 생각으로 7일 동안 3000배를 마쳤다. 파계사 진동루에서 삭발 의식을 가졌고, 삭발 후에는 팔공산 파계사의 행자 생활이 시작되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고된 행자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파계사는 계율(戒律)을 엄격히 지키는 도량이었다. 큰스님께서도 항상 행자들에게 청정계율에 중요성을 일러 주시며, 게으름 없이 수행정진 하라고 누누이 당부를 하셨다. "행자생활 하면서 한 번이라도 계율을 어기면 고향집으로 보낸다"고 으름장까지 놓으셨다.

하지만 절에 산다고 하루아침에 세속의 습관이 순식간에 없어질리 만무했다. 행자들이 벌이는 의외의 사건과 실수는 늘 큰스님을 놀라게 했지만 웃음과 용서로 덮어주셨다.

어느 날 오후 시간이었다. 배가 너무나 고파서 공양주 보살님께 라면 2개만 끓여 달라고 부탁했다. 공양주 보살님은 힘들게 행자 생활을 하는 필자가 안쓰러웠는지 흔쾌히 라면을 끓여줬다. 사중스님들 모르게 라면을 먹어야 하니 아궁이 근처로 가서 맛있게 라면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주지스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 행자, 어디 있는가."

행여 주지스님께 들킬까봐 숨도 참고 부동자세로 있었다. 그 상태로 주지스님이 가기만을 기다렸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인기척이 없자 먹다 남은 라면을 꿋꿋하게 다 먹고 빈 그릇 들고 밖으로 나오는데 필자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 주지스님이 지키고 서 있었기 때문이다.

"정 행자! 니 여기서 뭐하노!" 당장 불호령이 떨어졌다. 순간 '이제 고향집으로 가야겠구'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쩔 수 없이 이실직고하기로 했다. 주지스님에게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여 먹었다고 하자 스님은 법당에서 3000배하며 참회할 것을 명했다. 이 일을 계기로 필자는 더 하심하며 몸과 마음을 숙이는 게 됐다.

비록 혼은 났지만 청정계율이 시퍼렇게 살아 있던 파계사에서 먹었던 라면 맛은 지금도 잊지 못한다. 오늘도 부처님 품안에서 머물 수 있어 참 행복하다.



명진 스님
파계사 총무



김권태의 **요즘 학교는** ⑬ 가장 큰 선물

내적동기와 자존감

아내가 외출한 주말 오후, 엄마가 금세 그리운 아기가 칭얼대기 시작한다. 자이언트 판다 같이 큰 32개월 된 아기를 침대에 눕히고 팔베개를 하며 동화책을 읽어준다. 주인공 코알라가 조랑말을 타고 신나게 달리다, 갑자기 멈춰 선 조랑말을 어쩌지 못해 당황한다. 이때 그간 주인공이 조그맣다고 무시했던 햄스터가 당근으로 조랑말을 유도해내고, 그런 햄스터의 재치를 칭찬하며 둘이 신나게 조랑말을 타고 노는 이야기다.

매너리즘에 빠질 때마다 우리 아기가 사는 세상을 생각해 본다. 어떤 세상을 물려줘야 하나, 그런 고민이 학교현장에서의 수업이 된다. 나는 우리 아이가 내적으로 자존감이 튼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는 자존감이란 삶의 모든 경험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말한다. 마치 고마움이라는 말처럼 자기가 받은 사랑을 발견해서 그것을 준 상대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또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존귀한 사람으로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 것 말이다.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를 보며, "잎사귀야 고마워! 처음 보는 내게 반갑게 손짓을 해줘"라고 말할 수 있는 힘 말이다.

내가 생각하는 자존감이란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식의 낙관이 아니다. 반만 남은 물과 그 위의 빈자리를 함께 보는,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을 말한다. 물만 보는 낙관은 막연한 기대로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게 하고, 빈자리만 보는 비관은 문제를 크게 부풀려 희망 속에서 절망을 찾는 꼴이기 때문이다. 물과 빈자리를 함께 볼 때만 그 빈자리가 희망과 설렘이 될 수 있다.

학위, 재물 등 외적동기가 아닌
'이 일을 통해 멋진 사람 되겠다'
내적동기 있어야 자존감 고양돼

물이 온전한 에너지가 되고, 빈자리가 온전한 가능성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달리지 않는 조랑말을 당근으로 꼬시는 꼬마 햄스터를 생각한다. 당근은 이리로 오면 주겠다는 보상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동기 그 자체다. 당근이 외적동기가 될 때 우리는 당근의 노예가 되겠지만, 당근이 내적동기가 될 때는 그 자체로 그 사람의 품격이 된다. 학위, 자격증, 돈의 유무로 평가하는 외적동기가 아니라, '나는 이 일을 통해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이 일을 통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람이 될 거야'하는 내적동기 말이다. 이 내적동기가 바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자존감이다.

학기 초 칠판에 크게 글씨를 쓰고 함께 외워보는 시가 있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에서 배우고,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며, 진짜 부자는 만족할 줄 알고, 품격 있는 사람은 밖으로 구함이 없다.(賢者好學 强者克己 富者知足 格者無求)"

현명한 사람은 아이큐가 높은 게 아니라 모든 것에서 배울 줄 아는 사람이고, 강한 사람은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한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는 사람이며, 진짜 부자는 수백억 자산가가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고, 품격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에 대해 남 탓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를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현명하고, 강하고, 부자이고, 품격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부모로서,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나의 가장 큰 선물이다.

〈동국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사〉

기자칼럼

빈곤이 죄가 돼야 하는가

2014년 2월, 근처 놀이공원 식당에서 일하며 생계를 잇고 있던 60세 어머니와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하던 35세 큰 딸, 만화가 지망생으로 알바로 생활을 책임졌던 32세 작은딸은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일명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으로 알려졌던 이 사건은 한국 복지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무엇보다 이들은 없는 돈을 쪼개고 쪼개 살면서도 월세와 공과금을 절대로 밀리지 않고 살았던, 어디에나 있는 선량한 소시민들이었다.

송파 세 모녀가 유명을 달리한지 11년이 지났다. 경제는 성장했고, 사람들의 삶은 윤택해졌다. 하지만 한국 전체 인구 중 15%, 노인인구 중 40%가 빈곤을 경험하고, 소득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가 2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런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빈곤·가난·장애'를 사회 한구석으로 격리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빈곤층에 대한 사회복지 문제를 발생했을 경우 대부분 '제도를 활용하지 못해서'라는 진단을 내놓는다. 하지만 그렇게 발굴되는 위기가정 중 공적 복지로 연결되는 비중은 약 3%에 불과하다. 빈곤층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복지정책과 함께 노동과 주거, 의료서비스와 같은 사회정책 변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게 현장 활동가들의 주장이다.

사회에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어떻게 생을 이어가려 했던 세 모녀는 유서에 이같이 썼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가난과 장애로 인해 생을 스스로 마감해야 했던 이들이 죄송해야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야 했는가. 도리어 그들을 격리하며 소외시켰던 사회가 그들에게 미안함을 가져야 하지 않았을까. 2월 25일 열린 송파 세 모녀 11주기 추모제에서 추모의식을 진행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스님들의 염불소리가 유독 구슬프게 들렸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합장하고 기도한다.

'가난과 장애 때문에 유명을 달리한 모든 분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BTN 붓다회
BUDDHACLUB

BTN 불교TV 영상포교 30년

BTN불교TV는 한국불교의 대중화와 청년포교를 위해
부처님 말씀과 대덕스님들의 귀한 법문을 전 세계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 시대에 맞는 다양한 컨텐츠로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앞서 뛰겠습니다.
아직 BTN 붓다회 회원이 아니시라면 지금 당장 가입하시어
BTN불교TV를 응원해 주십시오.
BTN붓다회 회원에게는 다양한 혜택과 특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입문의 1855-0108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